의과대학 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병원 직원들의 인식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실¹, 가정의학교실², 기생충학교실³

이상엽¹ · 양승혜² · 민홍기² · 김영주² · 김윤진^{2,3} · 정해진^{1,3}

= Abstract =

Hospital Employees' Awareness about Medical Student's Clerkship

Sangyeoup Lee¹, MD, PhD, Sung-Hae Yang², MD, Hong-Gi Min², MD,
Young-Joo Kim², MD, PhD, Yun-Jin Kim², MD, PhD, Hae-Jin Jeong^{1,3}, MD, PhD

*Medical Education Unit¹,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²,
Department of Parasitology³,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urpose: With our medical school accepting graduate level students, there may be more conflicts between the older students and hospital employees. These issues need to be dealt with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of medical students during clerkship.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setting of clerkship by analysing how knowledgeable hospital employees are about medical school clerkship.

Methods: Study subjects included 206 hospital employees working at a university hospital in Pusan. Subjects completed a self-reported questionnaires on the hospital employees' knowledge about medical student's clerkship.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were based on a five point scale,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statistical methods including χ^2 -test, two-sample t-test, ANOVA, and partial correlation.

Results: Opinions about the awareness of educational role of the university hospital, necessity of clerkship, influence that clerkship has on doctor's careers, necessity for clerkship students to understand roles of other hospital employees, and degree to which hospital employee explain their roles to clerkship students, were positive, but opinions about the attitudes of clerkship students were neutral, and opinions about attachment to clerkship students, clerkship students' efforts to understand the roles of hospital employees were negative. Opinions about the necessity of clerkship, influence that clerkship had on doctor's careers, clerkship students' efforts to understand roles of hospital employees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opinions about the attitude of clerkship students, attachment to clerkship students and the degree of explaining hospital employee's roles to clerkship students.

Conclusion: To increase attentiveness in hospital employees towards medical clerkships, it seems necessary both to educate hospital employees on the clerkship itself and on working together with medical students, and to have clerkship students continue to be taught on the roles of other employees of the hospital.

Key Words: Clerkship, Hospital employee, Medical student, Knowledge

교신저자: 이상엽,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실, 부산시 서구 아미동 1가 10번지

Tel: 018)765-6790, Fax: 051)242-8671, E-mail: saylee@pnu.edu

* 본 연구는 2005년 부산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신임교수연구정착금)에 의한 연구임.

서 론

의과대학의 의학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임상실습의 중요성은 의학의 발달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고 현재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최영길, 1990). 임상실습은 졸업 후 의사가 직접 접하게 되는 환자를 중심으로 임무 수행의 현장에서 숙련된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제 상황을 경험하게 하는 훈련과정이다(김영진 등, 1993). 교과서와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을 직접 활용하도록 하면서 더 나아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습득하게 되는 지식, 수기 및 태도 등은 다른 교육 방법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특수한 과정이다.

영국의 국가의학위원회(General Medical Council, 1993)에 의하면 의과대학 학생들은 일반적인 진료에 관해 더 많은 경험을 얻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임상실습과 같은 도제적 학습의 경우,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미래에 일하게 될 실제 상황과 가까운 상황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Regehr & Norman, 1996).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임상실습 기간 동안 가능한 많은 환자들, 보호자들 및 병원 직원들과 접촉하고 그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임상실습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설정한 교육목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어 임상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다.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학생들에 의해 평가하거나(이영미 등, 2002; 박주현·김 선, 2004), 교수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이나 그룹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거나(김영진 등, 1993; 장성호 등, 1993),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학생의 진료 참여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연구들은 시행되었지만(Cooke et al., 1996; Betham et al, 1999; Monnickendam et al., 2001),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병원 직원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

는 거의 없다.

많은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이미 전환이 되었거나 바뀌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학부 교육과 달리 교육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임상실습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 다양한 학부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 혹은 사회생활을 이미 경험한 학생들이 입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즈음하여 임상실습 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병원 직원들과의 관계는 이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병원 직원들을 소개하고, 병원 직원들에게 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도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의 보다 나은 관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들 뿐 아니라, 병원 직원들이 의과대학 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고 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의과대학 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병원 직원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의과대학 학생의 임상실습 환경 개선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가.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4년 11월 1일부터 5일간 부산의 일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제외한 일반직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기기입식으로 총 229명(응답률 27.1%)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 중에서 설문지의 자료가 누락된 23명을 제외한 206명(최종 응답률 24.4%)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나. 연구 방법

일개 대학병원의 교육연구실을 통해 각 부서별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대상자 전원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성별, 나이, 교육 수준, 결혼 유무 및 직종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어 근무 부서에 근무할 때 임상실습 학생과 주당 접하는 횟수 및 의과대학 병원의 의학교육에 관한 기능

인지 여부, 임상실습의 필요성 및 앞으로의 의사 생활에 주는 영향력에 대한 견해, 임상실습 학생에게 타 직종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앞으로의 임상실습 형태에 대한 견해 및 임상실습의 목표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하였다. 끝으로 는 임상실습 학생을 접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에게 하루에 학생들과 접하는 시간, 임상실습 학생의 태도에 대한 견해, 임상실습 학생에게 가지는 애착 정도, 직원들 업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 및 임상실습 학생에게 직원들의 업무를 설명해 주는 정도 등을 따로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성격에 따라 객관식 답가지만을 사용하거나 객관식 답가지와 주관식 답가지 모두를 병행해서 사용하였다. 직종은 통상적인 병원 직제를 중심으로 간호직(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직(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의공기사) 및 기타 직업(약사, 영양사, 위생사, 행정직 및 기타)으로 분류하였다.

다. 분석방법

통계 프로그램은 SPSS for windows 12.0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성과 각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임상실습 학생의 태도에 대한 견해, 임상실습 학생에게 가지는 애착 정도, 직원들 업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 임상실습 학생에게 직원들의 업무를 설명해 주는 정도, 의과대학 병원의 의학교육에 관한 기능 인지 여부, 임상실습의 필요성 및 의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견해 및 임상실습 학생에게 타 직종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의 경우 가장 긍정적인 대답은 5점, 가장 부정적인 대답은 1점으로 하는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기본적 특성 및 임상실습 학생과 주당 접하는 횟수, 1일당 보내는 시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χ^2 -test, two-sample t-test, ANOVA with Duncan's posthoc test 및 partial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가.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특성

설문에 응답한 206명의 병원 직원들 중에서 남성은 33명 (16.0%), 여성은 173명 (84.0%)이고, 나이는 30세 이하가 99명 (48.1%), 31~40세가 50명 (24.3%), 41~50세가 43명 (20.9%), 51세 이상이 14명 (6.8%)이었다. 최종 학력이 대학교를 졸업한 직원들이 156명 (7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이상이 35명 (17.0%), 고등학교 졸업이 15명 (7.3%)이었다. 결혼을 한 직원이 108명 (52.4%), 미혼인 직원이 98명 (47.6%)이었다. 직종별로는 간호직은 132명 (64.1%), 의료기사직은 23명 (11.2%), 기타 직업은 51명 (24.8%)이었다.

직종별로 기본적인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의 경우 간호직에서는 전체가 여성, 기타 직업에서는 62.7%가 여성인 것에 비해 의료기사직에서는 60.9%가 남성이었다($p < .001$). 나이에서는 간호직은 대부분이 30세 이하 (62.1%)인 것에 비해 의료기사직은 41~50세 (43.5%)가, 기타 직업은 31~40세 (45.1%)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p < .001$). 교육 수준은 간호직에서 대학교 졸업이 83.3%, 대학원 이상이 12.1%, 고등학교 졸업이 4.5%, 의료기사직은 대학교 졸업이 60.9%, 대학원 이상이 34.8%, 고등학교 졸업이 4.3%, 기타 직업은 대학교 졸업이 62.7%, 대학원 이상이 21.6%, 고등학교 졸업이 15.7%로 나타났다($p < .05$). 결혼 유무는 간호직에서는 미혼이 57.6%인 것에 비해 의료기사직과 기타 직업에서는 기혼이 각각 73.9%, 68.6%이었다($p < .001$)(Table I).

나. 임상실습 학생들을 주당 접하는 횟수 및 1일당 보내는 시간

병원 직원들이 근무 시에 임상실습 나온 학생들과 주당 몇 회 정도 접하느냐는 질문에 '0회' 61명 (29.6%), '1~2회' 75명 (36.4%), '3~4회' 40명 (19.4%), '5회 이상' 30명 (14.6%)으로 '1~2회'가 36.4%로 가장 많았다 (Table I). 간호직과 의료기사직이 기타 직업에 비해 임상실습 학생들을 주당 접

Table I. Bas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Job			No. (%)	
	Nurse*	Technologist	Others	Total	p**
Gender					
Male	0 (0.0)	14 (60.9)	19 (37.3)	33 (16.0)	< .001
Female	132 (100.0)	9 (39.1)	32 (62.7)	173 (84.0)	
Age (years)					
≤ 30	82 (62.1)	6 (26.1)	11 (21.6)	99 (48.1)	< .001
31 ~ 40	23 (17.4)	4 (17.4)	23 (45.1)	50 (24.3)	
41 ~ 50	23 (17.4)	10 (43.5)	10 (19.6)	43 (20.9)	
≥ 51	4 (3.0)	3 (13.0)	7 (13.7)	14 (6.8)	
Education					
~ High school	6 (4.5)	1 (4.3)	8 (15.7)	15 (7.3)	< .05
~ College	110 (83.3)	14 (60.9)	32 (62.7)	156 (75.7)	
Graduate school ~	16 (12.1)	8 (34.8)	11 (21.6)	35 (17.0)	
Marital status					
Married	56 (42.4)	17 (73.9)	35 (68.6)	108 (52.4)	< .001
Single	76 (57.6)	6 (26.1)	16 (31.4)	98 (47.6)	
The number of times the study subjects meets clerkship students (per week)					
0	28 (21.2)	2 (8.7)	31 (60.8)	61 (29.6)	< .001
1 ~ 2	48 (36.4)	14 (60.9)	13 (25.2)	75 (36.4)	
3 ~ 4	31 (23.5)	6 (26.1)	3 (5.9)	40 (19.4)	
≥ 5	25 (18.9)	1 (4.3)	4 (7.9)	30 (14.6)	
Total	132 (100.0)	23 (100.0)	51 (100.0)	206 (100.0)	
Hours spent in one day with clerkship students (hour/day)					
0 ~ 1	52 (50.0)	14 (66.7)	13 (65.0)	79 (54.5)	ns
1 ~ 2	22 (21.2)	6 (28.6)	1 (5.0)	29 (20.0)	
2 ~ 3	6 (5.8)	1 (4.8)	0 (0.0)	7 (4.8)	
≥ 3	24 (23.1)	0 (0.0)	6 (30.0)	30 (20.7)	
Total	104 (100.0)	21 (100.0)	20 (100.0)	145 (100.0)	

* Including nurse's aid, ** p values were obtained by χ^2 -test, ns: not significant.

축 횟수가 많은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직종별로는 간호직 104명 (72.0%), 의료기사직 21명 (91.0%), 기타 직업 20명 (39.0%)이 주당 1회 이상 접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접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145명 중, 하루에 몇 시간을 접

하느냐는 질문에 '0~1시간' 79명 (54.5%), '1~2시간' 29명 (20.0%), '2~3시간' 7명 (4.8%), '3시간 이상' 30명 (20.7%)으로 '0-1시간'이 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직종과 하루에 학생들과 접하는 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I).

Table II. Hospital Employees' Knowledge about Medical Student's Clerkship

Items of Questions	five-point Likert scale	Number (%)
I recognize that our university hospital has an educational role for medical students	Very well	64 (31.1)
	Well	95 (46.1)
	Average	32 (15.5)
	Little	14 (6.8)
	None	1 (0.5)
I am keen about the necessity of clinical clerkship	Very	129 (62.6)
	Slight	56 (27.2)
	Average	21 (10.2)
	Little	0 (0.0)
	None	0 (0.0)
Clinical clerkship influenc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ir future roles as physician	Very much	40 (19.4)
	Much	88 (42.7)
	Average	63 (30.6)
	Little	14 (6.8)
	None	1 (0.5)
I think that medical students in clinical clerkship do understand the roles of hospital employees	Very	141 (68.4)
	Slight	53 (25.7)
	Average	12 (5.8)
	Little	0 (0.0)
	None	0 (0.0)
What is your overall evaluation about the attitude of clerkship students?	Very active	4 (2.8)
	Active	31 (21.4)
	Average	74 (51.0)
	Passive	31 (21.4)
	Very passive	5 (3.4)
I feel an affinity for clerkship students	Very much	5 (3.4)
	Much	15 (10.3)
	Average	73 (50.3)
	Little	44 (30.3)
	None	8 (5.5)
Clerkship students make efforts to understand the role of hospital employees	Very much	2 (1.4)
	Much	23 (15.9)
	Average	77 (53.1)
	Little	30 (20.7)
	None	13 (9.0)
I explain my role as a hospital employee to clerkship students	Always	17 (11.7)
	Frequent	45 (31.0)
	Often	60 (41.4)
	Little	16 (11.0)
	None	7 (4.8)

다. 대학병원의 교육적 목적에 대한 인지정도

대학병원이 진료, 연구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생의

교육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잘 알고 있다’ 64명 (31.1%), ‘잘 알고 있다’ 95명 (46.1%), ‘보통이다’ 32명 (15.5%), ‘잘 모

Table III. Awareness of the Educational Role of the University Hospital for Medical Students

	No.	Mean $\pm$ SD 3.99 $\pm$ 0.85	p*
Gender			
Male	33	4.03 $\pm$ 0.68	ns
Female	173	3.99 $\pm$ 0.89	
Age (yr)			
≤ 30	99	3.74 $\pm$ 0.87	<0.001
31 ~ 40	50	4.10 $\pm$ 0.88	
41 ~ 50	43	4.35 $\pm$ 0.81	
≥ 51	14	4.50 $\pm$ 0.51	
Education			
High school	15	3.33 $\pm$ 0.97	<0.05
College	156	3.99 $\pm$ 0.88	
Graduate school	35	4.37 $\pm$ 0.69	
Marital status			
Married	108	4.22 $\pm$ 0.82	<0.001
Single	98	3.77 $\pm$ 0.89	
Position			
Nurse	132	4.08 $\pm$ 0.81	ns
Technologist	23	3.83 $\pm$ 1.11	
Others	51	3.90 $\pm$ 0.94	
The number of times the study subjects meets clerkship students (per week)			
0	61	4.05 $\pm$ 0.97	ns
1 ~ 2	75	4.03 $\pm$ 0.90	
3 ~ 4	40	3.78 $\pm$ 0.86	
≥ 5	30	4.17 $\pm$ 0.64	
Hours spent in one day with clerkship students (hour/day)			
0 ~ 1	79	4.03 $\pm$ 0.87	ns
1 ~ 2	29	4.17 $\pm$ 0.71	
2 ~ 3	7	3.43 $\pm$ 0.97	
≥ 3	30	3.83 $\pm$ 0.83	

Mean $\pm$ SD: based on five-point Likert scale, from 1=none to 5=very well

* p value were obtained by two-sample t-test or ANOVA with Duncan's posthoc test, ns: not significant

른다' 14명 (6.8%), '전혀 모른다' 1명 (0.5%)이었고 (Table II), 5점 척도 중 평균 3.99 ± 0.85 로 대체로 대학병원의 교육적 목적에 대한 인식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p < .001$),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p < .05$), 결혼을 한 사람 ($p < .001$) 이 대학병원의 교육적 목적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은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 직

종, 주당 접하는 횟수, 1일당 함께 보내는 시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III).

라. 임상실습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의과대학 학생에게 임상실습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 129명 (62.6%), '약간 필요하다' 56명 (27.2%), '보통이다'

21명 (10.2%), ‘필요하지 않다’ 0명 (0.0%), ‘전혀 필요하지 않다’ 0명 (0.0%)으로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Table II). 5점 척도 중 평균 4.52 ± 0.69 로 대부분이 임상실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성별, 나이, 교육 수준, 결혼 유무, 직종, 주당 만나는 횟수, 1일당 보내는 시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 임상실습이 의사 생활에 주는 영향에 대한 견해

학생들의 임상실습이 앞으로의 의사 생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많이’ 40명 (19.4%), ‘비교적 많이’ 88명 (42.7%), ‘보통’ 63명 (30.6%), ‘별로 영향력이 없다’ 14명 (6.8%), ‘전혀 영향력이 없다’ 1명 (0.5%)이었고 (Table II), 5점 척도 중 평균 3.64 ± 0.91 로 대부분이 임상실습이 앞으로의 의사 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남자 ($p < .05$), 나이가 많을수록 ($p < .05$),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p < .05$), 결혼한 사람 ($p < .05$) 일수록 임상실습이 앞으로의 의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당 접하는 횟수에 따라 한 번도 접한 적이 없거나 5회 이상 접하는 사람이 좀 더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p < .05$). 직종, 하루에 학생들과 접하는 시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Table IV).

학생들의 임상실습이 앞으로의 의사 생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직종의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84명 (40.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에 대한 공감을 많이 갖게 될 것이다’ 58명 (28.2%),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33명 (16.0%), ‘병원내부의 어떤 일이라도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9명 (9.2%), ‘기타’ 9명 (4.4%), ‘복수 응답한 경우’ 3명 (1.4%) 순으로 나타났다.

바. 임상실습 학생에게 타 직종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임상실습 학생에게 병원내의 다른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

냐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 141명 (68.4%), ‘약간 필요하다’ 53명 (25.7%), ‘보통이다’ 12명 (5.8%), ‘필요하지 않다’ 0명 (0.0%), ‘전혀 필요하지 않다’ 0명 (0.0%) 이었고 (Table II), 5점 척도 중 평균 4.63 ± 0.59 로 대부분이 임상실습 학생에게 병원내의 다른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타 직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성별, 나이, 결혼 유무, 직종, 주당 만나는 횟수, 1일당 보내는 시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 임상실습 학생들의 태도에 대한 견해

임상실습 학생들을 접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145명 중, 임상실습 나온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적극적이다’ 4명 (2.8%), ‘적극적이다’ 31명 (21.4%), ‘보통이다’ 74명 (51.0%), ‘적극적이지 않다’ 31명 (21.4%),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5명 (3.4%)이었고 (Table II), 5점 척도 중 평균 2.97 ± 0.82 로 대체로 중립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에서 평균 2.90 ± 0.77 로 부정적인 견해가 조금 많았고, 남자에서는 3.45 ± 0.99 로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으며 ($p < .05$), 대학 졸업이 2.86 ± 0.82 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원 이상이 각각 3.40 ± 0.51 , 3.27 ± 0.82 로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p < .05$). 나이, 결혼 유무, 직종, 주당 만나는 횟수, 1일당 보내는 시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 임상실습 학생에게 가지는 애착에 대한 견해

임상실습 학생들을 접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145명 중, 임상실습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애착을 가지는냐는 질문에 ‘매우 많이’ 5명 (3.4%), ‘많이’ 15명 (10.3%), ‘보통’ 73명 (50.3%), ‘별로 없다’ 44명 (30.3%), ‘전혀 없다’ 8명 (5.5%)이었고 (Table II), 5점 척도 중 평균 2.76 ± 0.84 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2.65 ± 0.77 로 부정적인 견해가 강한 반면 남자는 3.45 ± 0.94 로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고 ($p < .001$), 나이별로는 30세

Table IV. Opinions about the Influence of the Clinical Clerkship on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ir Future Roles as Physician

	No.	Mean $\pm$ SD 3.64 $\pm$ 0.91	p*
Gender			
Male	33	4.03 $\pm$ 0.68	< 0.05
Female	173	3.68 $\pm$ 0.88	
Age (yr)			
≤ 30	99	3.53 $\pm$ 0.81	< 0.05
31 ~ 40	50	3.82 $\pm$ 0.94	
41 ~ 50	43	4.00 $\pm$ 0.84	
≥ 51	14	4.14 $\pm$ 0.66	
Education			
High school	15	3.53 $\pm$ 0.74	< 0.05
College	156	3.67 $\pm$ 0.87	
Graduate school	35	4.14 $\pm$ 0.77	
Marital status			
Married	108	3.91 $\pm$ 0.89	< 0.05
Single	98	3.55 $\pm$ 0.80	
Position			
Nurse	132	3.65 $\pm$ 0.86	ns
Technologist	23	3.74 $\pm$ 0.96	
Others	51	3.96 $\pm$ 0.79	
The number of times the study subjects meets clerkship students (per week)			
0	61	3.97 $\pm$ 0.70	< 0.05
1 ~ 2	75	3.51 $\pm$ 0.82	
3 ~ 4	40	3.68 $\pm$ 1.02	
≥ 5	30	3.93 $\pm$ 0.97	
Hours spent in one day with clerkship students (hour/day)			
0 ~ 1	79	3.56 $\pm$ 0.93	ns
1 ~ 2	29	3.52 $\pm$ 0.98	
2 ~ 3	7	3.71 $\pm$ 0.48	
≥ 3	30	3.97 $\pm$ 0.80	

Mean $\pm$ SD: based on five-point Likert scale, from 1=none to 5=very well

* p values were obtained by two-sample t-test or ANOVA with Duncan's posthoc test, ns: not significant

이하가 2.58 ± 0.64 로 가장 부정적이었고 41 ~ 50세에서 3.26 ± 1.02 로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고 ($p < .05$),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대학 졸업이 2.64 ± 0.76 으로 가장 부정적이었고 대학원 이상이 3.19 ± 1.09 로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고 ($p < .05$), 미혼이 기혼에 비해

부정적인 견해가 강하였고 ($p < .05$), 1일당 보내는 시간별로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 3시간 이상이 3.23 ± 0.67 로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p < .05$). 직종과 주당 만나는 횟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V).

Table V. Affinity for Clerkship Students

	No.	Mean $\pm$ SD 2.76 $\pm$ 0.84	p*
Gender			
Male	20	3.45 $\pm$ 0.94	< 0.001
Female	125	2.65 $\pm$ 0.77	
Age (yr)			
≤ 30	81	2.58 $\pm$ 0.64	< 0.05
31-40	28	2.68 $\pm$ 0.77	
41-50	27	3.26 $\pm$ 1.02	
≥ 51	9	3.11 $\pm$ 1.36	
Education			
High school	10	2.90 $\pm$ 0.56	< 0.05
College	109	2.64 $\pm$ 0.76	
Graduate school	26	3.19 $\pm$ 1.09	
Marital status			
Married	69	2.97 $\pm$ 0.98	< 0.05
Single	76	2.57 $\pm$ 0.63	
Position			
Nurse	104	2.65 $\pm$ 0.76	ns
Technologist	21	3.00 $\pm$ 0.94	
Others	20	3.05 $\pm$ 1.05	
The number of times the study subjects meets clerkship students (per week)			
1 ~ 2	75	2.69 $\pm$ 0.75	ns
3 ~ 4	40	2.78 $\pm$ 0.76	
≥ 5	30	2.90 $\pm$ 1.12	
Hours spent in one day with clerkship students (hour/day)			
0 ~ 1	79	2.66 $\pm$ 0.89	< 0.05
1 ~ 2	29	2.62 $\pm$ 0.77	
2 ~ 3	7	2.43 $\pm$ 0.53	
≥ 3	30	3.23 $\pm$ 0.67	

Mean $\pm$ SD: based on five-point Likert scale, from 1=none to 5=very well

* p values were obtained by two-sample t-test or ANOVA with Duncan's posthoc test, ns: not significant

자. 직원들 업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에 대한 견해

임상실습 학생들을 접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145명 중, 임상실습 학생들이 직원들의 업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느냐는 질문에 ‘매우 많이’ 2명 (1.4%), ‘비교적 많이’ 23명 (15.9%), ‘보통’

77명 (53.1%),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30명 (20.7%),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13명 (9.0%)이었고 (Table II), 5점 척도 중 평균 2.80 ± 0.86 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성별로는 여자가 2.70 ± 0.64 로 부정적인 반면 남자는 3.45 ± 0.68 로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고 ($p < .001$), 1일당 보내는 시간별로는 1~2시간이 2.59 ± 0.90 으로 가장 부정적이었고 3시간 이상이

Table VI. The Degree to Which Hospital Employees Explain the Roles to Clerkship Students

	No.	Mean $\pm$ SD	p*
		3.34 $\pm$ 0.98	
Gender			
Male	20	4.00 $\pm$ 1.02	< 0.05
Female	125	3.23 $\pm$ 0.94	
Age (yr)			
≤ 30	81	3.25 $\pm$ 0.92	ns
31 ~ 40	28	3.32 $\pm$ 0.90	
41 ~ 50	27	3.52 $\pm$ 1.12	
≥ 51	9	3.67 $\pm$ 1.32	
Education			
High school	10	3.20 $\pm$ 1.13	ns
College	109	3.30 $\pm$ 0.97	
Graduate school	26	3.54 $\pm$ 0.98	
Marital status			
Married	69	3.46 $\pm$ 1.03	ns
Single	76	3.22 $\pm$ 0.93	
Position			
Nurse	104	3.14 $\pm$ 0.92	< 0.001
Technologist	21	4.10 $\pm$ 0.88	
Others	20	3.55 $\pm$ 0.99	
The number of times the study subjects meets clerkship students (per week)			
1 ~ 2	75	3.37 $\pm$ 0.96	ns
3 ~ 4	40	3.35 $\pm$ 1.05	
≥ 5	30	3.23 $\pm$ 0.97	
Hours spent in one day with clerkship students (hour/day)			
0 ~ 1	79	3.30 $\pm$ 1.05	ns
1 ~ 2	29	3.17 $\pm$ 0.96	
2 ~ 3	7	3.57 $\pm$ 0.78	
≥ 3	30	3.53 $\pm$ 0.86	

Mean $\pm$ SD: based on five-point Likert scale, from 1=none to 5=very well

* p values were obtained by two-sample t-test or ANOVA with Duncan's posthoc test, ns: not significant

3.27 $\pm$ 0.69로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p < .05$). 나이, 교육 수준, 결혼 유무, 직종, 주당 만나는 횟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차. 임상실습 학생에게 직원들의 업무를 설명해주는 정도에 대한 견해

임상실습 학생들을 접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145명 중, 직원들의 업무에 관심을 보이는 임상실습 학생에게 직원들의 업무를 설명해주느냐는 질문에

‘항상’ 17명 (11.7%), ‘비교적 자주’ 45명 (31.0%), ‘가끔’ 60명 (41.4%), ‘거의 하지 않았다’ 16명 (11.0%), ‘전혀 하지 않았다’ 7명 (4.8%)이었고 (Table II), 5점 척도 중 평균 3.34 $\pm$ 0.98로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견해가 강하였고 ($p < .05$), 직종별로는 의료기사직이 기타 직업, 간호직에 비해 긍정적인 견해가 강하였다 ($p < .001$). 나이, 교육 수준, 결혼 유무, 주당 만나는 횟수, 1일당 보내는 시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Table VII.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Questions

	Overall evaluation about the attitude of clerkship students	The affinity for clerkship students	The degree of explaining hospital employee's roles
	r (p)	r (p)	r (p)
Awareness of the educational role of the university hospital for medical students	0.021 (0.830)	0.119 (0.165)	0.071 (0.410)
Necessity of clinical clerkship	0.207 (0.015)*	0.230 (0.007)*	0.223 (0.009)*
The influence of the clinical clerkship on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ir own future role as physician	0.309 (0.000) [†]	0.241 (0.004)*	0.243 (0.004)*
Clerkship student's effort to understand the role of hospital employees	0.501 (0.000) [†]	0.449 (0.000) [†]	0.234 (0.006)*

r: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adjusted gender, age, education, marriage, job, frequency of meet per week, daily spending time.

* $p < .05$ by partial correlation, [†] $p < .001$ by partial correlation

이가 없었다 (Table VI).

카. 임상실습 학생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견해와 애착의 관련 요인

성별, 나이, 교육 수준, 결혼 유무, 직종, 주당 만나는 횟수 및 1일당 보내는 시간을 보정한 후의 임상실습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임상실습 학생의 태도에 대한 견해 ($p < .05$), 임상실습 학생에게 가지는 애착 정도 ($p < .05$), 임상실습 학생에게 직원들의 업무를 설명해주는 정도 ($p < .05$)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상관정도는 약했다. 임상실습이 장래 자신의 의사상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한 견해는 임상실습 학생의 태도에 대한 견해 ($p < .001$)와는 유의한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임상실습 학생에게 가지는 애착 정도 ($p < .05$), 임상실습 학생에게 직원들의 업무를 설명해주는 정도 ($p < .05$)와 유의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원들 업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에 대한 견해는 임상실습 학생의 태도에 대한 견해 ($p < .001$), 임상실습 학생에게 가

지는 애착 정도 ($p < .001$)와 유의한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임상실습 학생에게 직원들의 업무를 설명해주는 정도 ($p < .05$)와 유의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VII).

타. 임상실습의 형태 및 임상실습의 목표에 대한 견해

임상실습이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 23명 (11.2%), '보완을 하여 유지' 154명 (74.8%), '잘 모르겠다' 22명 (10.7%), '기타' 7명 (3.3%)으로 '보완을 하여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임상실습의 가장 적절한 목표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병원체계의 총괄적 이해' 87명 (42.2%), '의료상식의 습득' 49명 (23.8%), '체험을 통한 봉사정신의 함양' 44명 (21.4%), '병원근무자들과의 인간적 유대' 4명 (1.9%), '모르겠다' 1명 (0.5%), '기타' 5명 (2.4%), 복수 응답 16명 (7.8%)이었다.

고 찰

의학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임상실습 과정에서 임상실습 학생들은 임상실습 중, 환자 및 보호자들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들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들과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의과대학 학생의 진료 참여에 대한 환자들의 견해를 조사한 외국의 연구들을 보면 실제로 환자들의 진료 시 의과대학 학생의 존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나타나 있으며, 부정적인 태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Cooke et al., 1996; Monnickendam et al., 2001; Betham et al, 1999). 국내에서도 일개 대학병원에 내원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에서의 의과대학 학생의 진료 참여에 대한 환자들의 견해와 이러한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알아본 바 있다. 외래 환자들은 의과대학 학생의 외래 진료 참관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당수 많은 환자들은 이미 대학병원이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인지도가 높을수록 의과대학 학생의 진료 참여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이해균 등, 2003).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를 통해서 병원 직원들은 직종과는 상관없이 대다수가 의과대학 병원이 진료,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의과대학생의 임상실습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임상실습이 앞으로의 의사 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임상실습 학생들을 접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145명 중, 임상실습 학생들의 태도에 대한 견해는 반 수 이상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임상실습 학생에게 가지는 애착 정도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이다. 이 결과는 임상실습 학생에게 타 직종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68.4%)를 차지한 것과 임상실습 학생들이 직원들의 업무를 이해하려고 노력

하는 모습을 보였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는 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학병원의 교육적 목적, 임상실습의 필요성 및 앞으로의 의사 생활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병원 직원들의 인식이 높았지만, 임상실습 학생들이 직원들의 업무 이해 정도도 낮고 업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상실습 학생에게 가지는 애착 정도가 낮았고 임상실습 학생에게 타 직종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임상실습이 앞으로의 의사 생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직종의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대답이 84명(40.8%)으로 가장 많았던 점도 같은 맥락에서 병원 직원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임상실습 형태에 대한 견해에서 직종에 상관없이 보완하여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74.8%)를 차지한 것은 임상실습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교육 과정을 평가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총괄적 평가는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이며 임상실습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 학생들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이영미 등, 2002; 박주현·김 선, 2004).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한 대인관계 갈등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의사와의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전공의와의 갈등이 가장 컸고(구미옥·김매자, 1985; 조남옥 등, 2001; Lockhart-Wood, 2000), 임상실습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교육 과정을 평가한 연구(이영미 등, 2002)에서 병원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의 원만한 대인관계 습득에 있어서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임상실습 전부터 타 직종의 병원 직원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임상실습 학생에게 좀더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서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의학교육 과정 내에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1999년 미국의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는 ‘대인관계와 의사소통기술’을 의사의 핵심능력으로 채택하였다(Horowitz, 2000).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의과대학 재학 중에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박정환, 1996; 이성낙, 1996; 김용일, 2000; 김현진 등, 2002; 최창진 등, 2004). 국내 몇몇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봉사실습제(문창현 등, 1990)나 ‘체험의학: 타 직종 이해하기 프로그램’(김지영 등, 2001)은 학생들에게는 병원 내 타 직종종사자들의 업무, 역할, 애로점을 이해하게 하고, 의사가 아닌 의료종사자들도 학생교육에 참여한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게 됨에 따라 학생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간호사를 제외한 직종의 참여가 적었다는 점, 표본의 대상이 일개 대학병원에 국한되었다는 점, 설문에 응답한 병원 직원들이 같은 대학병원의 교육연구실의 연구나 임상실습 학생에게 부정적인 대담을 하기를 꺼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병원의 경우 간호직,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및 기타 직업의 비율이 각각 67.5%, 16.8%, 15.6%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응답률이 24.4%로 통상적인 우편조사 응답률보다 높았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교육병원으로서 일개 대학병원 직원의 의과대학생의 실습에 대한 인식도 파악을 통한 학생실습의 효율적 운영의 기초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실제적인 관심으로 이끌어 의과대학생의 임상실습 환경의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타 직종 병원 직원들에게 임상실습에 대한 홍보 및 협조에 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임상실습 학생에게도 타 직종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구미옥·김매자(1985). 임상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분석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5(3), 39-49.
- 김영진 외(1995). 의과대학생의 임상실습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의학교육**, 7(2), 169-175.
- 김용일(2000). 환자, 의사, 사회에 대한 교육학적 관점. **제8차 의학교육 합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의학교육학회·한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대한의학회.
- 김지영 외(2001). ‘체험의학: 타 직종 이해하기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한국의학교육**, 13(1), 169-181.
- 김현진 외(2002). 일개 의대생의 2년간 의학면담기법 교육 전후의 인식도 변화. **한국의학교육**, 14(2), 165-174.
- 박정환(1996). 인성교육 학습사례(Ⅱ)-대구 효성가톨릭 의대 인성교육, 의과대학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제4차 의학교육 합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의학교육학회·한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대한의학회, 53-62.
- 박주현·김 선(2004). 일개 의과대학 임상실습 교육과정 평가. **한국의학교육**, 16(2), 157-167.
- 이성낙(1990). 기초의학 과정 중의 병원봉사 실습제도. **한국의학교육**, 2(1), 60-62.
- 문창현 외(1990). 한국 기초의학 과정 중 병원봉사 실습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의학교육**, 2(2), 57-66.
- 이성낙(1996). 인성교육 학습사례(Ⅱ)-아주의대의 인성교육, 의과대학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제4차 의학교육 합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의학교육학회·한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대한의학회, 45-49.
- 이영미 외(2002). 임상실습 교육과정 평가. **한국의학교육**, 14(2), 293-300.
- 이해균 외(2003). 의과대학 학생의 외래 참관에 대한 환자들의 견해. **한국의학교육**, 15(1), 11-18.
- 장성호 외(1993). 의과대학 임상실습 개선에 관한

- 연구. **한국의학교육**, 5(1), 34-40.
- 조남옥 외(2001). 간호사의 인간관계 갈등과 의사소통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7(2), 369-378.
- 최영길(1990). 효과적인 임상교육. **한국의학교육**, 2(1), 63-64.
- 최창진 외(2004). 임상실습을 마친 의대생의 환자 중심적 의사소통 기술과 태도. **한국의학교육**, 16(2), 169-177.
-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7).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조직 및 기능의 특성화 방안. 정책 과제 97-9.
- Betham, J., et al.(1999). Students conducting consultations in general practice and the acceptability to patients. *Medical Education*, 33(9), 686-687.
- Cooke, F., et al.(1996). Medical students in general practice - how do patients feel? *Br J Gen Pract*, 46(407), 361-362.
- General Medical Council(1993). *Tomorrow's Doctors - Recommendations on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London; General Medical Council.
- Horowitz, S.D.(2000). Evaluation of clinical competencies: basic certification, subspecialty certification, and recertification. *Am J Phys Med Rehabil*, 79(5), 478-480.
- Lockhart-Wood, K.(2000). Collaboration between nurse and doctors in clinical practice. *British Journal of Nursing*, 9(5), 276-280.
- Monnickendam, S.M., et al.(2001). Patient's attitudes towards the presence of medical students in family practice consultations. *Isr Med Assoc J*, 3(12), 903-906.
- Regehr, G. & Norman, G.R.(1996). Issues in cognitive psychology: implications for professional education. *Academic Medicine*, 71(9), 988-1001.